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공과금 내기도 버겁다

연간 예산 850만원...입주작가들 중도 하차 국내 타 창작스튜디오에 경쟁력도 떨어져

최근 미술공모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짐에 따라 창작스튜디오가 신인 등용문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를 개방하고 있지만 지역은 물론 외지 작가들에게 외면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입주 작가가 중도에 하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시립미술관이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위해 광주시로부터 확보한 예산은 850만원. 그나마 이 가운데 500만원은 수도·전기요금 등 공과금이다. 나머지 350만원은 작가 육성·홍보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의 하나인 전시회를 개최하는 데 사용해야 하지만, 전시공간을 꾸미는 데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등용문으로 자리잡으면서 치열한 입주경쟁이 벌어지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따르면 창동과 고양스튜디오 등 입주작가 지원서를 최근 마감한 결과 44명 모집에 330명이 지원, 경쟁률이 7.5대 1에 달했다.

한지공예·퀼트·만화가 한자리

'핸드메이드 아트 페스티벌' 26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한지공예, 퀼트, 만화 등 다양한 양식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예원한지공방, 퀼트비, 코믹스타만화화실이 주최하는 '핸드메이드 아트 페스티벌'전이 오는 26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박은희·배미정 작 '엔젤'

이 전시에는 한지공예, 퀼트, 만화 등 3개 부문에 걸쳐 모두 200여점이 선보인다. 한지 공예품으로는 책상, 찻상 등 생활용품이 출품됐으며, 퀼트는 이불, 가방, 모자, 지갑 등 작품이 전시된다.

만5천원, 만화는 무료. 문의 062-380-8852. 참가비는 한지공예 5천원, 퀼트 7천~1

사물놀이·전통문양...

"원더풀 코리아"

"가장 한국적인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무엇보다 기쁘요."

22일 국립광주박물관 누리관 소강당. 엘리사 김버(Elisa Kimber·여·26)씨 등 60여명의 외국인 교사들이 북, 장고 등을 연신 두들기면서 색다른(?) 사물놀이 가락을 연출했다.

이들은 광주 전남 지역 원어민 영어교사로 광주·전남도 교육청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일정 학교에 배치될 예비 선생님들. 이들은 국립광주박물관이 외국인들에게 우리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Sparkling Museum for Foreigners'에 참가함으로써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람, 풍물공연·체험, 전통문양 탁본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가, 무더위에 도 아랑곳 않고 시종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을 탐닉하는 체험에서 빼어난 예술성에 감탄사를 잊지 않았고 조형미를 배우기 위해 전담 강사에게 제작과정을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국립광주박물관, 외국인 원어민교사 대상 한국 문화체험행사



광주·전남 초·중·고교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22일 국립광주박물관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Sparkling Museum for Foreigners'에 참가해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다.

방으로 한 타악기의 조형이라 외국인들이 흥미로워했고 참여열기도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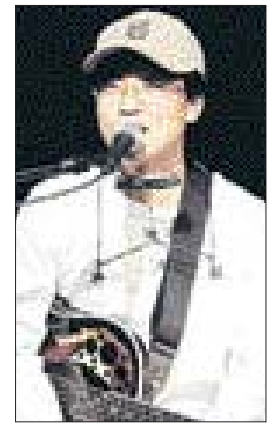
그물에 걸리지 않는 저 바람처럼

25일 무등산 풍경소리 5주년 음악회...가수 박창근씨 등 초청

무등산 풍경소리 5주년 기념 음악회가 25일 오후 7시 30분 무등산 중심사 문화광장에서 열린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저 바람처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는 초대 손님인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창근<사진>씨가.

그들 '천지인' 등과 함께 노래운동 진영의 대표적 단체인 '가락'에서 활동하기도 한 박씨는 이번 공연에서 환경과 생태주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노래를 들려준다. 해금(김은진)과 드럼(석경관)이 함께 협연 무대를 가질 예정. 또 대안학교인 간다학교 밴드 '여제 먹은



0626.

잠수함'이 출연하며 이야기 손님으로 풍경소리를 이끌고 있는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한다. 중심사에서 저녁 식사도 제공한다. 문의 062-22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ongseon Jikmyeongjeom' (Bongseon Restaurant) featuring various Korean dish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ree branches.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and '영화안니' (Movie) featuring film posters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제일시네마' (Jeil Cinema) listing movie titles and showtimes.